

남산공원내 노후시설의 이용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 회현지구 사례연구 -

김 경 배** · 정 숙 영***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Development Guidelines of Namsan Park's Existing Facilities*

- A Case Study of 'Hoehyeon' District -

Kyung-bae Kim** · Sook-young Jeong***

요약 : 남산공원은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1년 365일 관광객이 즐겨찾는 관광의 명소이다. 그러나 식물원, 동물원, 매점 등 많은 공원시설이 노후되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시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시설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시민만족도 감소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회현지구를 사례대상지로 선정해서 시민들의 공원이용행태, 만족도, 개선요구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 대안을 고찰해 보았다. 분석결과 시설노후화에 따른 남산공원의 경쟁력 저하와 시민만족도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동물원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구단위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익집단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남산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남산, 노후공원시설, 이용행태 및 만족도, 환경개선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detailed way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xisting facilities via a case study of Hoehyeon district in which Namsan botanic garden, zoo, and the patriot Ahn Jong-Geun Memorial Hall located. The results suggest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make a special task force and build a citizen committee for Namsan Park rehabilitation due to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key actors like citizen groups, landowners, and environment activiti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mprehensive plan for Namsan Park rehabilitation because all the problems are highly linked and complex, thus requiring a comprehensive solution at the scale of one or two districts. Finally,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obtaining subsidy and citizens' agreement.

Key Words : Namsan, park facilities, user behaviour pattern and satisfaction, renovation

* 본 논문은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된 『남산공원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Seoul Development Institute), 논문주작성자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 연구원(Researche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Seoul Development Institute)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남산¹⁾공원은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자연환경과 인문, 사회,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최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1년 365일 많은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의 명소이다. 그리고 종로구, 용산구 등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철따라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선사하는 자연 휴식처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휴식과 여가생활의 중심지이다.

최근 이러한 남산공원의 위상을 지키면서 일제시대와 60~70년대의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된 남산공원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즉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된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을 통해 일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이전 철거하였으나 식물원, 동물원, 매점 등 대부분이 존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접근성 및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지 않아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3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12개 공원의 공원관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산공원은 공원관리 서비스 종합

만족도 10위, 공원 근접성 7위, 시설이용만족도 10위, 환경/위생 상태만족도 10위로 조사된 바 있다.²⁾ 따라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남산공원의 심각한 위상 저하와 이용인구의 저감이 예상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남산공원을 대상으로 이전에 수립된 남산 제 모습 가꾸기 기본계획(서울특별시, 1992)도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계획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며 청계천 복원 등 90년대 이후 많은 도시공간상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산공원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 과제들 중에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시민만족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남산공원 내 노후공원시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남산공원 재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남산공원의 경쟁력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남산공원의 5개 시설지구³⁾중에서 회현지구를 심층사례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회현지구의 대표시설⁴⁾이라고 볼 수

1) 남산은 풍수지리상 서울의 안산에 해당하는 산으로 조선시대에는 국가안보의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기능인 도성(18km)과 봉수대 그리고 목멱대왕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던 장소임. 일제시대에는 민족혼 말살을 위한 핵심공간인 조선신궁이 위치했던 장소임. 또한 서울을 대표하는 산으로서 도심경관의 조망이 가능한 최고의 명소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서울타워가 위치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2003), p.7

3) 남산공원 5개 시설지구는 회현지구, 팔각정지구, 한남지구, 국립극장지구, 장충지구임.

4) 회현지구에는 남산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교육과학연구원, 남산도서관, 백범광장, 맨발공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설로 '남산식물원'(86.4%), '동물원'(83.9%), '안중근의사 기념관'(83.9%)

있는 남산식물원과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이용행태, 만족도, 불편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환경개선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회현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식물원, 동물원 등 30년 이상 경과된 대표적인 노후 건축물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고,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고 방문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의 성과가 미미해서 시급한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현지구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04년 7월 30일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수정하여 2004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일과 휴일을 포함한 3일간 실시되었다. 설문부수는 총 200부이며 남산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 개선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50부씩 추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피설문자와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설문지에 직접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설문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남산공원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해서 기존연구의 동향과 한계를 밝히고 본 연구의 독창성 및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개요를 소개하고 회현지구 이용시민들의 이용행태, 만족도, 개선요구사항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회현지구의 대표시설인 남산식물원, 동물원, 안중근 의사 기념

관을 심층 연구대상으로 선정해서 시민들의 이용행태, 만족도, 개선요구사항, 기존계획과의 연속성, 주민의견, 전문가의견을 분석하고 다양한 환경개선대안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해방이후 남산공원의 높은 인지도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 내 노후공원시설의 이용행태와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박봉규(1987), 오구균(1987), 오구균 외(1988), 이경재(2001), 이경재 외(1987) 등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남산의 식생과 식물군집 구조를 분석하고 외래식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태계 보전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남산공원길의 경관조명 개선방안 연구(김정태·김윤석, 2001), 남산공원 탐방자의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김중명, 1982), 남산공원 장충지수 수경시설 조성보고서(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03) 등 남산공원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한 소수의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남산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행태 분석, 시민의견 수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환경개선방안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는 90년대 초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100인의 시민

으로 조사되었고 회현지구를 대표하는 시설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남산식물원’과 ‘안중근의사기념관’을 꼽았음.

위원회(1991)가 수립한 '남산 제 모습 찾기 종합기본계획'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도 남산의 역사성,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립되었기 때문에 잠식시설을 철거하고, 야생화공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미했다. 최근 완료된 남산공원 현황조사용역(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무소, 2003)도 단순한 물리적 현황조사에 그쳤을 뿐 세부시설에 대한 이용행태와 만족도를 분석하거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시도는 아니었다. 2003년 서울시 12개 공원관리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도 심층적인 학술연구라기보다는 남산공원 관리차원에서 공원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1991년 수립된 남산 제 모습 찾기 종합기본계획도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계획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한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도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제 2의 남산 가꾸기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남산공원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독창적이며, 연구시점과 연구내용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III. 노후공원시설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 분석 : 회현지구 사례연구

1. 대상지 개요

회현지구는 남산 서쪽 기슭의 회현동과 후암동 일대에 위치하며, 어린이 공원, 백범광장,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안중근의사기념관, 남산도서관, 남산관리사무소, 소동물원, 식물원이 있는 지역으로 약 4만 9천평 정도이다(〈그림 2〉 참조). 지구 주변은 소파길과 소월길로 둘러싸여 있고, 남산 순환로가 단차를 두고 중간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북서-남동 방향으로 긴 부지의 형상이 도로에 의해서 크게 3개의 구역 즉, 아래로부터 어린이공원, 백범광장, 중앙광장(분수광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남산의 서봉에서부터 내려오는 산세의 능선을 따라 남대문까지 서울성곽이 연결되어 있던 곳이나, 일제시대에 현 식물원 자리에 조선신궁이 축조되면서 그 흐름이 단절되었고, 성곽 또한 소실된 상태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계획과 국회의사당 건립계획이 추진되는 등 끊임없는 개발압력이 존재한 곳이다.



〈그림 1〉 일제 때 조선신궁



〈그림 2〉 회현지구의 경계 및 시설배치도 현황

2. 이용행태 분석

1) 회현지구의 이용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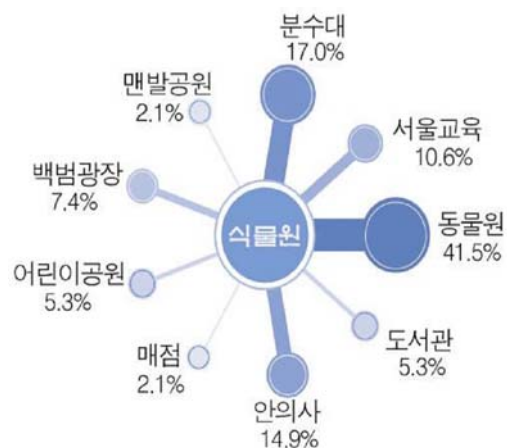
회현지구는 다목적 도시공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어린이부터 60대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용계층이 다양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도 관광, 견학, 휴식, 운동, 나들이, 데이트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참조). 특히, 중앙광장 주변의 보행량이 시간당 약 480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유치원생들의 단체견학이 많고 가족단위의 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범광장 주변에는 '휴식/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맨발공원과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휴식과 담소를 즐기는 노인층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거의 매일' 방문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주요 방문계절은 '계절에 관계없이' 방문한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반 유형은 '가족 방문'이 37.7%로 가장 많고, 방문목적은 '휴식 및 산책'이 62.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접근 수단은 '도보'로 접근한다는 응답자가 33.2%로 가장 많았다. 공원에 머무르는 시간은 '3시간 이내'가 42.2%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내'가 23.6%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노후공원시설의 이용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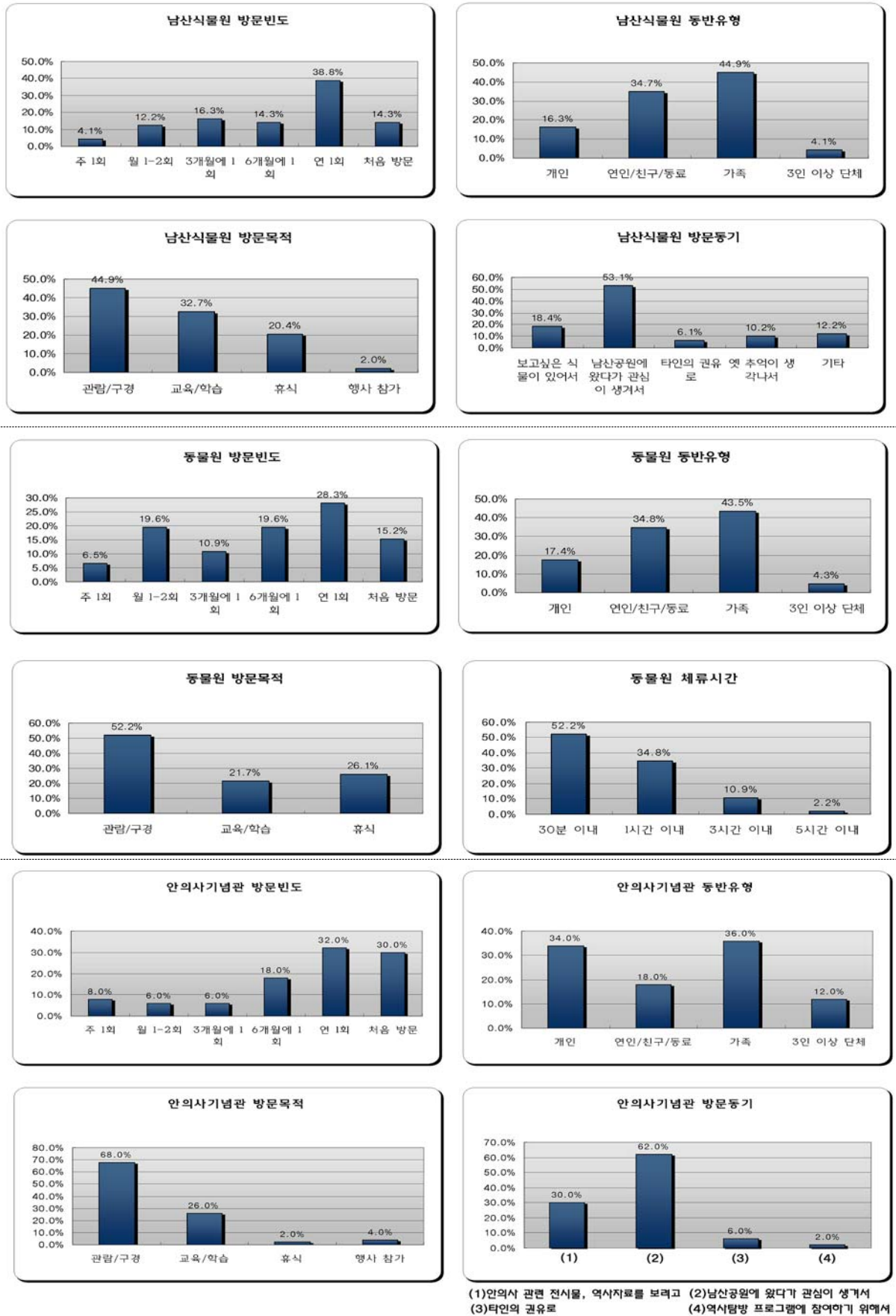
(1) 남산식물원

남산식물원 방문빈도는 '1년에 한번'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38.8%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

1회 방문이 16.3%, 6개월에 1회 방문이 14.3%, 월 1회 이상 16.3%로 조사되었다(〈그림 4〉 참조). 방문 계절은 53.1%가 '계절에 관계없이' 방문한다고 응답했지만 겨울철의 이용객 방문율이 매우 낮은(4.6%)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반 유형을 살펴보면, 남산식물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방문(44.9%), '연인, 친구, 동료와 함께' 방문(34.7%), '개인' 방문(16.3%), '단체' 방문(4.1%)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목적은 '관람/구경'이 44.9%로 가장 많았다. 방문 동기는 '남산공원에 왔다가 관심이 생겨서'가 53.1%로 가장 많았고, '보고 싶은 식물이 있어서'와 '옛 추억이 생각나서'라고 응답한 시민은 각각 18.4%와 10.2%로 비교적 낮았다. 식물원과 연계성이 가장 높은 시설은 동물원, 분수대, 안중근의사 기념관 순이었고(〈그림 3〉), 시민들은 식물원과 1~2개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식물원에 머무르는 시간은 대체로 '1시간 이내'(46.9%)로 조사되었으며, 30분 이내 체류하는 시민이 36.7%,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체류하는 시민이 16.3%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식물원과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분석



〈그림 4〉 남산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이용행태 분석 결과

(2) 동물원

동물원의 방문빈도는 '1년에 한번'(28.3%) 방문하는 행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월 1~2회(19.6%), 6개월에 1회(19.6%)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참조). 방문계절은 '계절에 관계없이'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60.9%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목적은 '관람/구경'이 52.2%, '휴식'이 26.1%로 나타났다. 동반유형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인, 친구, 동료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34.8%, '개인' 방문이 17.4%, '단체' 방문이 4.3%로 분석됐다. 방문 동기는 '남산공원에 왔다가 관심이 생겨서'(69.6%) 방문한다고 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동물원에 머무르는 시간은 절반 이상이 '30분 이내'(5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빈도는 '1년에 한번' 방문하는 사람이 3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참조). 동반유형은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방문도 34.0%로 상당히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방문목적은 '관람/구경'(68.0%)과, '교육/학습'(26.0%)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 동기는 '남산공원에 왔다가 관심이 생겨서'(62.0%) 방문하는 사람이 '안의사 관련 전시물, 역사 자료를 보려고'(30.0%) 방문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 시간은 '30분 이내'(50.0%)가 가장 많았고, '1시간 이내'(32.0%) '3시간 이내'(18.0%)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이용자 만족도 분석

1) 회현지구 이용에 대한 만족도

회현지구 내 주요시설(남산식물원, 동물원,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안중근의사기념관, 남산도서관, 백범광장, 맨발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교육과학연구원의 만족도(58.9%)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안의사기념관'(55.6%), '남산도서관'(54.0%), '백범광장'(52.2%)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해 하고 있는 시설들은 매점(40.9%)과 동물원(40.7%), 어린이공원(2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회현지구의 문제점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18.5%)과 시설 노후화(1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공간과 휴식공간, 안내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회현지구가 새로 정비된다고 할 때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원의 모습은 '휴식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50.3%)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자연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공간'(24.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민들은 '휴식 및 편익시설'(18.4%), '생태체험 및 교육 공간'(12.4%), '수공간'(13.2%)의 신설 또는 확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노후공원시설 이용 만족도

(1) 남산식물원

남산식물원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2.8%,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시민은 12.2%로 조사되어 만족한다는 시민이 불만족하는 시민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회현지구 내 9개 시설의 만족도와 비교해보면 만족도 순위 6위로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산식물원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규모가 작고(20.0%), 시설이 낙후되었으며(19.3%), 전시수종이 부족하다(18.6%)는 것이었다. 대체로 깨끗하고 주변과 어울리지만, 단순하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그림 5> 참조).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남산식물원의 가장 좋은 개선 방안은 '현 위치를 유지하고 시설을 현대화'(67.3%)하는 것이며, 만약 남산식물원이 철거된다면 '남산성곽과 연계된 시민들의 휴식, 산책 공간'(44.3%)으로 조성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동물원

동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만족',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9.6%에 불과하고,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시민이 47.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회현지구 내 9개 시설 중에서도 상대적인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원의 문제점으로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동물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볼 것이 없다'(41.3%)는 것이었으며, '악취가 심하다'(34.8%)는 지적도 많았다. 동물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상보다는 대부분 청결하지 못하고 단순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그림 5> 참조).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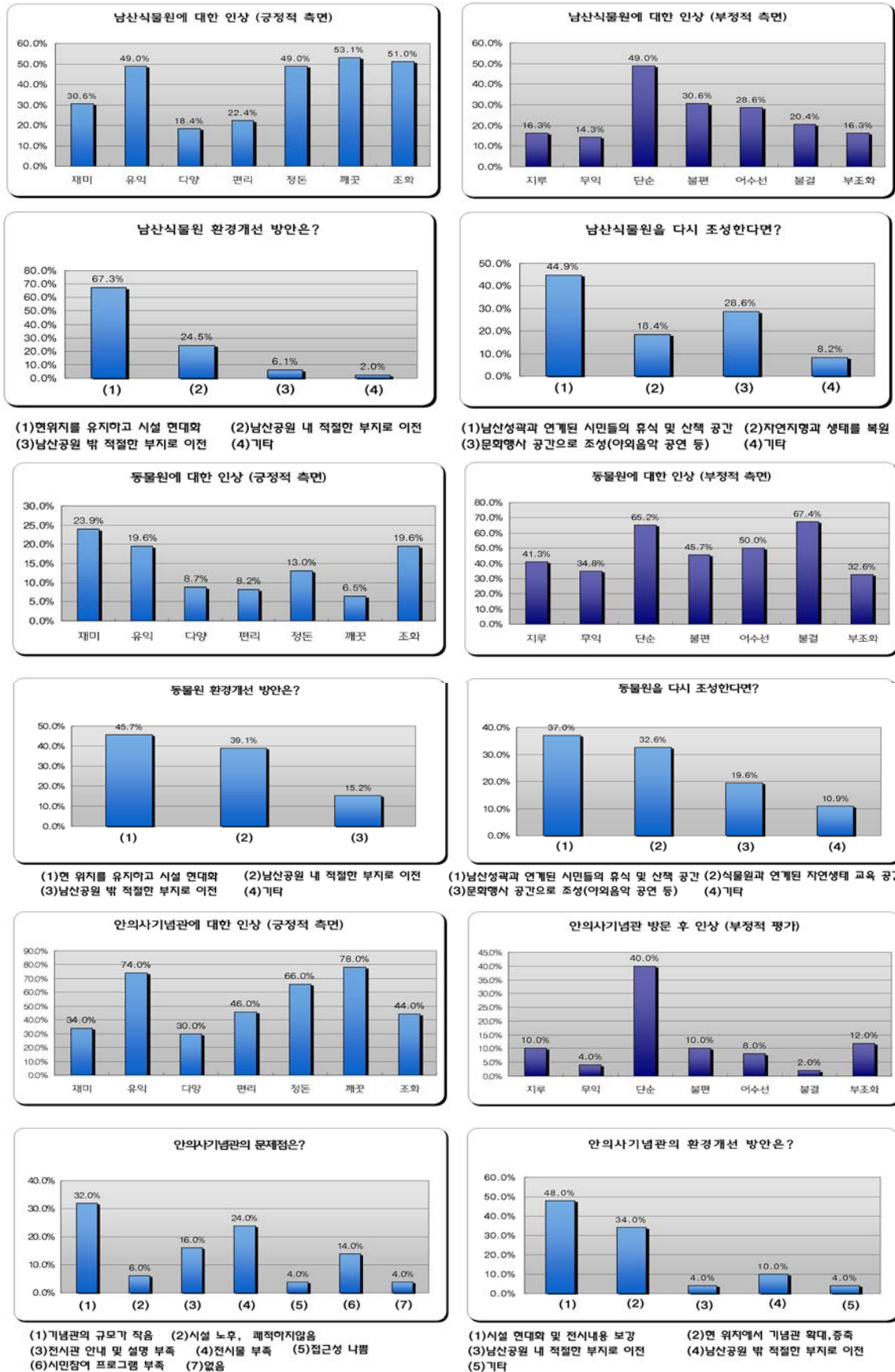
동물원 개선방안은 '현 위치를 유지하고 시설을 현대화'(45.7%)하는 것이지만 동물원을 철거/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도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약 철거된다면, 식물원과 마찬가지로 '남산성곽과 연계된 휴식 및 산책 공원'(37.0%)으로 조성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이용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만족',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8.0%이고, '불만족',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로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현지구 내 9개 시설 중에서도 만족도 2위로서 평가되었으며, 대체로 시민들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대해서 깨끗하고 유익하다는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 참조). 문제점으로는 '작은 규모'(32.0%)와, '전시물 부족'(24.0%)을 지적하였다.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개선 방안은 '현 시설을 현대화하고 전시 내용을 보강'(48.0%)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기념관을 확대, 증축'(34.0%)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희망하는 시민도 1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소결 : 종합 및 시사점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회현지구의 이용행태, 만족도,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 남산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만족도 분석 결과

첫째, 회현지구는 유치원 어린이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용계층이 다양하고 이용 목적 또한 휴식, 산책, 관광, 운동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관광객과 유치원생들의 단체 견학이 많고, 시민들이 주로 선택하는 접근수단은 '도보'이며, 공원에 체류하는 시간은 3시간 이내가 7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공원시설의 이용행태는 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 등 공원시설 2~3개를 함께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시민들은 향후 회현지구를 휴식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자연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남산식물원은 회현지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주로 관람/구경(44.9%), 교육/학습(32.7%)을 위해 이용되고 있고, 회현지구 방문 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장소이지만 만족도가 9개 시설 중에서 6위로써 매우 낮는데, 그 원인은 볼거리가 단순하고 시설이 물리적으로 노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은 남산식물원 재정비 방안으로 현 위치를 유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설물 철거 시 남산성곽과 연계된 휴식산책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동물원은 주로 어린이들의 관람/구경, 교육/학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회현지구내 9개 시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는데 이는 동물원이 30년 이상 경과된 대표적인 노후건축물이고 보유동물이 다양하지 못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급

한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동물원을 철거하고 다른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민들은 동물원 철거시 남산성곽과 연계된 휴식 및 산책공원을 조성하거나 식물원과 연계된 자연생태교육 공간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조성된 지 35년 경과된 노후시설이지만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원인은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념관 내부공간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문제점은 기념관의 규모가 작고 전시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개선방안으로 현 위치를 유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현 위치에서 기념관을 확대/증축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주요 노후시설의 환경개선방안 고찰

이 장에서는 전술한 남산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이용행태, 만족도,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산 제 모습 가꾸기 기본계획의 내용과 전문가의견, 예상경비 등을 함께 고려해서 각 시설별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평가해서 가장 합리적인 환경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남산식물원

1) 쟁점 및 고려사항

1968년에 조성된 남산식물원은 시민들이 옛

추억의 장소로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방문하는 시설이다. 또한 일제가 서울성곽을 철거하고 조선신궁을 지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뼈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대표적인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낡고 비좁아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3년간 일부 노후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과거 7년(1997~2003) 동안 이용자수가 약 14만 명 감소했으며 2004년에도 이용자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김경배, 2004: 121). 남산 제 모습 찾기 기본계획(서울특별시, 1992: 131~143)에서는 식물원을 한남지구로 이전하고, 이전적지에 성곽을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준식(2003, 131~136)은 식물원을 철거하고 안중근기념관을 이전신축하거나 조선신궁을 복원하는 등 전면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 인터뷰 결과 최근 예산투자를 통해 일부 시설의 환경개선을 이룬 시점에서, 철거/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많은 시민들에게 옛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는 기념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의견과 식물원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환경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대안 및 개선방향 검토

① 대안 1: 현 위치 유지하고 기존시설 개선

첫 번째 대안은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대안으로 현 식물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노후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안의 장점은 남산식물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시설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녹지훼손이 없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물원 중정과 복도의 리모델링 사업과 전시수종의 차별화, 특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경우 시민들에게 유익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6> 참조). 단점은 기존 남산제 모습 바꾸기 기본계획의 내용(철거 후 성곽을 복원하는 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기존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역사문화재 관련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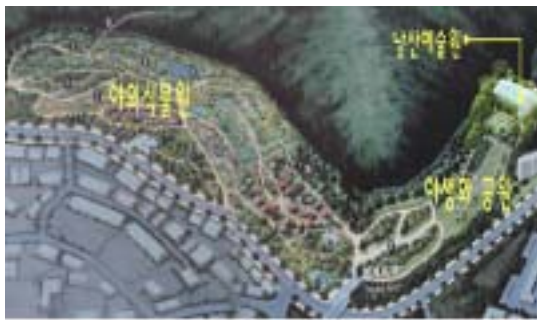


〈그림 6〉 식물원 복도와 중정공간의 환경개선 예시

② 대안 2: 남산공원 한남지구로 이전

두 번째 대안은 한남동 남산예술원(2,576평, 건물 207평) 부지로 식물원을 이전하는 것이

다. 이 안은 야외식물원, 야생화공원과 연계시켜 실내 식물원을 이전함으로써 한남지구의 특성 즉, 자연학습 공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림 7〉 참조). 또한 한남지구 내 부적격 잠식건물인 미8군 종교휴양소와 남산 맨션을 철거하고 이전적지를 재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녹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단점은 현재 사유지인 남산예술원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과 식물원 철거 및 신축을 위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림 7〉 한남지구로 이전하는 방안 예시

③ 대안 3 : 남산공원 밖 서울숲 나비온실로 이전

세 번째 대안은 남산식물원을 철거하고 보유식물을 서울 숲 나비온실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서울 숲 나비온실이 현재 조성 중이기 때문에 즉시 이전이 가능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식물원 이전적지를 성곽복원과 연계시켜 매력적인 휴식산책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점은 남산공원 내 식물원을 존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상충되고 남산공원의 불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8〉 나비온실 조감도 (서울특별시, 2004: 64)

도출된 세 가지 대안을 기존계획과의 정합성, 시민의견, 전문가의견, 경제성의 4가지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남산식물원을 남산예술원 부지로 이전하고 이전적지는 성곽을 복원하여 휴식산책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최근 약 5억원의 예산 투입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현 위치를 유지하고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서울성곽 복원을 위해서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지표조사 등 사전 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남지구의 잠식시설이 철거된 후에야 이전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원 이전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따라서 남산식물원의 환경개선은 이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산식물원을 한남지구로 이전해서 야외식물원과 야생화공원과 연계시켜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고, 이전적지는 서울성곽을 복원해서 휴식산책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 위치에서 식물원 중정과 복도 등 노후화된 공간을 우선 개보수하여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 전시식물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표 1〉 참조).

〈표 1〉 남산식물원 개선방안 대안 검토

검토 기준	대안 1	대안 2	대안 3
	현위치 재정비	남산예술원 부지로 이전	나비온실로 이전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	○	△
시민 의견	○ (적극찬성 67.3%)	△ (일부 찬성 24.5%)	× (공원 밖 이전 찬성 6.1%)
전문가 의견	일부 선호	선호	일부 선호
경제성 (예산 경비)	식물원 복도, 중정 등 노후/저이용 공간 리모델링 비용	남산식물원 부지매입비와 식물원 철거/신축 비용	보유식물 이전을 위한 교통 경비 약간
종합 평가	○ 현실적 대안	● 이상적 대안	

2. 동물원

1) 쟁점 및 고려사항

1971년에 조성된 동물원은 식물원과 인접해 있고 부지규모는 약 400평이다. 사육장 규모는 약 120평(370㎡)이고 주 이용대상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인데, 현장조사 결과 물리적인 노후가 심각하고 동물의 서식환경이 열악해서 현재는 동물학대에 가까운 실정이다. 보유 동물의 수도 적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시민 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동물원에는 총 34종의 조류/수류가 사육

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많은 시민들이 동물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물원의 노후 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동물원의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반대로 동물원은 일제 시대 조성된 대표적인 부적격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철거,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 동물원의 환경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 대안 및 개선방향 검토

① 대안 1 : 현 위치를 유지하고 기존시설 개선

첫 번째 대안은 식물원과 함께 현 위치를 유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안은 설문조사결과 다수의 시민(45.7%)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동물원의 철거/이전을 선호하는 시민들도 약 54%에 달해 시민들의 절대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성곽 복원을 통한 남산의 역사성 복원이라는 기존 계획(서울특별시, 1992: 131~143)의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문화재 관련 시민단체, 환경단체, 여러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동물원 이전/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의견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② 대안 2 : 남산공원 내 한남지구로 이전

두 번째 대안은 동물원을 식물원과 함께 한남동 남산예술원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약 39.1%의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안의 단점

은 성곽복원 등 기존계획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2006년 이후에나 식물원 철거/이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한 동물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③ 대안 3 : 철거하고 보유동물은 타 시설로 이전

세 번째 대안은 남산공원 밖 적절한 부지로 동물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현재 동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 동물을 타 시설로 이전하는 약간의 비용으로 노후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안의 장점이다. 그러나 현재 동물원과 식물원은 매우 유사한 이용계층과 이용행태(유치원생들의 단체학습 공간으로 활용)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원만을 철거/이전하는 대안은 회현지구의 볼거리 감소와 식물원 이용자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도출된 세 가지 대안을 기존계획과의 정합성, 시민의견, 전문가의견, 경제성의 4가지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가장 이상적인 동물원의 환경개선방안은 남산식물원 철거/이전계획과 병행하여 동물원을 철거/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적지는 회현지구의 역사성과 자연성을 복원한다는 남산 제 모습 찾기 기본원칙과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성곽복원과 연계된 휴식산책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2006년 이후에나 식물원 철거/이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

므로 우선 동물원의 노후시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거나, 동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표 2〉 동물원 개선방안 대안 검토

검토 기준	대안 1	대안 2	대안 3	
	현위치 재정비	남산예술원 부지로 이전	철거후 보유동물은 타시설로 이전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	×	○	
시민 의견	○ (다수 찬성 45.7%)	△ (다수 찬성 39.1%)	×	(일부 찬성 15.2%)
전문가 의견	일부 선호	선호	선호	
경제성 (예산 경비)	노후시설 개선 및 주변환경 개선비용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비용	보유동물 이전을 위한 교통 경비	
종합 평가	○ 현실적 대안		● 이상적 대안	

3. 안중근의사기념관

1) 쟁점 및 고려사항

1970년에 개관한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실내 전시실 규모가 약 594.28㎡(180평)이며, 안의사의 영정 및 관련 사진, 건국공로 훈장, 옥중 유묵, 자서전, 옥중 유언 및 서한, 관계도서 및 문헌, 당시 신문과 유명인사 휘호 및 찬시 등 114점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광장에는 안의사의 인품, 기개, 사상을 느낄 수 있는 동상(약 200평, 높이 44m)과 어록비 16점이 전시되어 있고,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연간 3만 명의 학생 단체 관람 또는 가족

단위 견학 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윤봉길의사 기념관 등 타 기념관과 비교해 볼 때 전시규모가 매우 작고 이미 35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므로 새롭게 증축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송모회는 과거 조선신궁이 있었던 식물원 이전 부지에 안중근 의사 사당 및 기념관을 이전 건립해서 안의사의 항일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남산공원과 아무런 연고가 없고, 남산 제 모습 가꾸기 기본계획의 기조와 맞지 않는 부적격 잠식시설이므로 기념관을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전문가/시민들의 의견과 이용시민들의 이용행태, 만족도, 개선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환경개선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대안 및 개선방향 검토

① 대안 1 : 현 위치를 유지하고 기존시설 현대화

첫 번째 대안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서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현 위치를 유지하면서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내부의 전시패턴을 개선하여 보다 흥미롭고 유익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안의 장점은 추가적인 녹지훼손이 없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경우 회현지구의 특성(역사, 교육, 문화)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고, 서울성곽 복원사업과 연계시켜 전면광장과 동상을 포함한 외부공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대안 2 : 남산공원 밖으로 이전

두 번째 대안은 현 위치에서 기념관을 증축할 경우 추가적인 녹지훼손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계획(성곽복원)과도 상충되므로 기념관을 남산공원 밖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2006년 이후 민족공원으로 조성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적지로 기념관을 이전하는 것인데, 이 안의 장점은 뚜렷한 연고가 없이 남산에 건립된 안의사 기념관을 철거하고 이전적지에 성곽복원과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회현지구의 역사성과 자연성 복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족공원의 핵심이미지로서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애국활동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단점은 민족공원 내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미군기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③ 대안 3 : 현 식물원 부지에 기념관 신축

세 번째 대안은 안중근의사 송모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남산식물원 부지로 사당 및 기념관을 신축 이전해서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성역화하는 방안이다. 타 기념관과 비교해 볼 때 규모가 매우 작은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옛 조선신궁 부지에 새롭게 신축함으로써 안중근 의사의 애국, 애족, 평화정신을 추모하고 민족의식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안은 남산의 역사성 복원을 위해 식물원을 철거하고 서울성곽을 복원한다는 남산 제 모습 가꾸기 기본계획과 상충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수렴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남산공원에 뚜렷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성역화의 당위성도 약하다.

〈표 3〉 안중근의사기념관 개선방안 대안 검토

검토 기준	대안 1	대안 2	대안 3
	현위치 재정비	남산공원 밖으로 이전	식물원 부지로 이전신축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	△	×
시민 의견	○ (적극찬성 82.0%)	△ (일부 찬성 10.0%)	× (찬성 4.0%)
전문가 의견	선호	선호	일부 선호
예산 경비	노후시설 개선 및 전내내용 보강 비용	기념관 철거/ 이전/신축	기념관 철거/ 이전/신축
종합 평가	○ 현실적 대안	● 이상적 대안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식물원,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4가지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남산공원 밖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이전, 신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적지는 서울성곽을 복원하고 휴식산책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 단체 및 시민들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역사성 복원을 위한 성곽복원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현대화 및 전시 내용 보강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남산공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 중에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시민만족도 감소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남산공원의 5개 시설지구 중에서 일반시민들의 인지도가 높고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회현지구를 대상으로 공원이용시민들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개선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회현지구의 대표시설인 남산 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심층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해서 구체적인 환경개선 대안을 고찰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조사 결과 최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제외하고 시설노후화에 따른 남산공원의 경쟁력 저하와 시민만족도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민만족도가 가장 낮고 동물의 서식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동물원에 대한 시급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최근 지붕교체 등 부분적인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남산식물원도 시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회현지구의 대표적인 시설인 남산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개선요구사항, 환경개선 대안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남산공원 내 노후공원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개별건물의 리모델링 차원이 아닌 최소한 1개 지구 이상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남산공원의 대표 시설로 인지하고 있고 존치를 희망하는 남산식물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2개 지구(회현지구와 한남지구)에 걸친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노후공원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은 이익집단 사이의 이해조정이 어렵고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기초해서 장단기 사업계획 및 집행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성곽복원 등 장기적인 시간과 예산투자가 소요되는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담조직의 구성,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남산공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회현지구로 제한해야 했고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제시하는 데에

도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장충지구, 팔각정지구, 한남지구 등에 산재해 있는 노후공원시설의 이용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식물원, 동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환경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공원이용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폭 넓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공원이용행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원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배, 2004, 『남산공원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정태·김윤석, 2001,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공원의 경관조명 개선방안 : 서울시 남산 공원길 주변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9 : 165~176.
- 김중명, 1982, 『서울 남산공원의 탐방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남산제모습찾기 100인 시민위원회, 1991, 『남산제모습찾기 기본계획』.
- 박봉규, 1987, “남산공원(서울)의 식생과 토양요인에 관하여”, 『자연보존』 60호, 13~18.
- 박인재, 2002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1992, 『남산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03, 『2003 서울시 12개 공원관리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2004, 『서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04, 『2004 공원 현황』.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03 『남산공원 장충지구
수경시설 조성공사 보고서』.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무소, 2003, 『남산공원 현황조
사 용역』.
오구균, 1987, “남산공원의 식물군집구조 및 자연생태계
관리대책”, 『국토와 건설』 38호, 76~77.
오구균·이경재·임경빈, 1988, “식물사회학적 특성을 고
려한 남산공원 식생의 관리대책”, 『한국임학회지』
제77권 제1호, 1~9.
이경재, 2001, 『남산 도시자연공원 식생환경 실태 및 관리
방안』, 서울특별시용역과제.

이경재·박인협·오구균, 1987, “남산자연공원의 식물군
집구조 및 8년간의 식생변화분석”, 『한국임학회지』
제76권 제3호 통권 78호, 206~217.
중구문화원, 1998, 『남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 중
구향토사 제3집.
최준식, 2003, 『신서울기행』, 열애출판사.

원 고 접 수 일 : 2005년 4월 28일

1차심사완료일 : 2005년 5월 16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5년 5월 19일